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건설현장·농업 시설 안전 점검

✎ 장민솔 기자 | ⓒ 승인 2025.08.05 13:25

호우 피해,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 대응체계 살펴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및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한국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및 관내 13개 지사는 건설 현장 내 근로자 온열질환 및 농업 기반 시설물 침수 피해 예방 등 안전사고 대응체계 확인을 위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긴급 점검은 정부의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 대응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폭염 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여부와 집중호우에 따른 기상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선제적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저수지, 배수시설 등 농업 기반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긴급 점검뿐만 아니라 경남지역본부와 관내 13개 지사는 지난 5월부터 폭염 및 집중호우 철저한 대응을 위해 건설 현장 및 농업 기반 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확인·조치하는 활동도 함께 했다.

이 같은 활동의 결과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건설 현장 내 폭염에 따른 근로자 온열질환 재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난 극한 호우(16~20일)로 경남 평균 누적 강우량이 350mm가 넘었으나 관내 저수지, 배수시설 등 농업 기반 시설물의 침수 피해는 최소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손영식 경남지역본부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로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며 “국민의 재산권 및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점검과 대응을 통해 온열질환 사고, 집중호우를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본부는 올해 초부터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한 ‘2025년 건설 현장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공사가 발주한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과 정기·특별·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지원과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장민솔 기자 edit03@newsgn.com